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곽 동 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서론

II. 평생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
2. 평생교육의 기능과 방향성

III.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

IV.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V. 결 론

<참고문헌>

I. 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쳐 건국이후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공공도서관 평가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문화기반시설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 속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전국의 공공도서관간 경쟁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도서관의 경영관리 및 정보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경쟁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자 하는 목적과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으로부터의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거의 유사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모방하여 시행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나 독서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각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무한경쟁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이란 명제에 순응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국민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식정보의 활용 및 창조를 위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생존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가치개념이 범규적 위상으로까지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공공도서관도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 매스커뮤니티의 발달, 여가생활의 증대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나 지역사회는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적 역할까지도 함께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다양한 기능과 함께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주변 여건은 평생교육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에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처럼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여가선용적, 평생교육적 기능 등을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로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역사의 왜곡화를 방지하는 기능,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 지식정보를 재생산하는 기지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최근 들어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 내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관으로서 평생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외에도 박물관, 문화원, 시·군·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많은 유형의 기관들도 광의의 평생교육기관에 속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자인 주민 개개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능과 문화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으로는 공공도서관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활동의 장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기술변화 요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수동적 반응 내지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고 여겨서는 아니 된다. 즉, 평생학습은 개개인에게 내재된 학습본능을 되살려 창조성을 실현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평생학습의 핵심이며,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를 잡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명시된 평생교육적 역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맡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천명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네스코는 이 선언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공공도서관이 개인과 사회집단의 평생교육과 자립적인 의사결정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울러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이고 인간의 마음에 평화와 정신적인 행복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노인들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연령 계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주민들이 교육, 취미와 교양, 직업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궁극적으로 풍부한 인간 생활, 자아실현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살펴보고, 둘째,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을 조명하며, 셋째,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를 실례로 설정하여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평생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

최근 사회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생애교육이나 사회교육이란 용어들과 함께 쓰이고 있으며, '평생'이란 단어와 '교육'이란 단어가 결합된 복합명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평생'이

란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는 '전 생애에 걸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관심과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교육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로 무지한 인간을 안내하는 과정(플라톤)', '끊임없는 경험의 개조 과정(듀이)', '사회화의 과정(만하임)', '사회의 유지와 개조를 위한 문화전달의 과정(브라델트)',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형성의 과정(메슬로우)', '인간행동의 의도적인 변화 과정(스키너)', '문명된 삶의 형식으로서의 입문식(피터스)', '합리적 지식의 형식 안으로의 입문(허스트)' 사회적 기술과 의식의 재생산 과정(파인버그)

이처럼 '교육'에 대한 개념은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고에서는 전술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교육을 '일정한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여 인간을 지도하는 의식적 활동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형성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여 인간을 지도하는 의식적 활동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는 국내·외 교육학 분야에서 '평생교육'을 지칭하는 영문표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life-long integrated learning'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문표기는 전술한 평생교육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평생교육이 교육기회를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하고, 동일시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수평적·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수직과 수평의 양 차원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는 포괄적 교육이념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서,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의 통합으로서, 전자의 수직적 교육과 후자의 수평적 교육을 함께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평생교육은 삶의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삶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평생교육을 단순히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도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로부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지닌 특성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는' 조직적 교육활동이다. 둘째, 평생교육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셋째, 평생교육은 '일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일평생'에 걸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넷째, 평

평생교육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피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호 교육활동이다. 여섯째, 평생교육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일곱째, 평생교육은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도서관이나 박물관 또는 백화점의 문화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그 내용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달리 구성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영역 구분은 엄격하게 나누기 어렵지만, 그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및 기능에 따라 종합하여 유형화 시켜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들은 이미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다양한 유형의 문화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을 주제별, 봉사대상별, 사용하는 미디어 형태별, 도서관 지원 방법별로 체계화 시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수준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위한 과정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2. 평생교육의 기능과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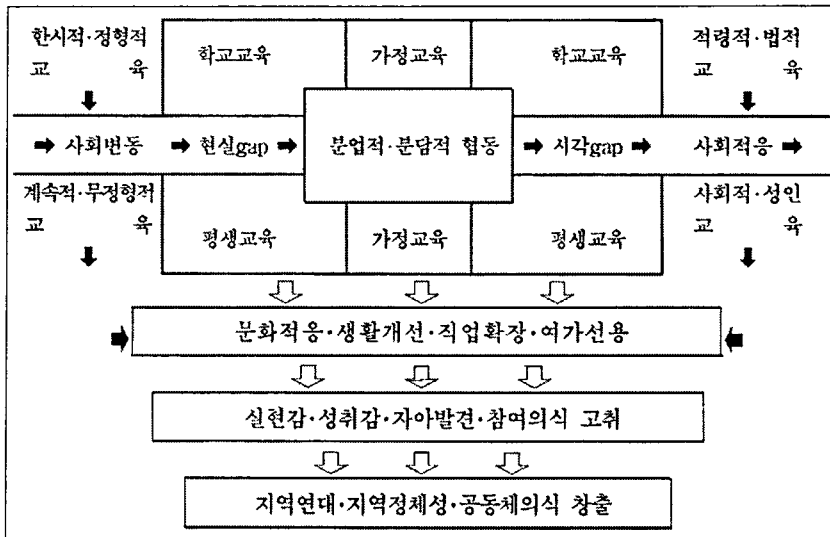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

<표 1> 평생교육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

평생교육 유형	평생교육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
국민 기초 교육 강화 교육	초보적인 문자해독에서 시작하여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과 생활기능 문해교육 등을 포함하는 기초교육을 제공·실시하는 교육
사회 계몽 교육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문화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질 향상을 위한 정신계도 및 의식함양 등과 같은 대중운동형 교육
지역 사회 개발 교육	지역사회의 경제·정치·문화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강화시키고,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
인력 양성 교육	국가나 각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직업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학제에 의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 직업인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학교 교육 보완 교육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단기간 실시하는 비정규 학교교육
여가 선용 및 교양 증진 교육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발전 및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주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외형적·가시적 성과보다는 내재적인 가치 추구에 치중하는 교육
시민의식 함양 교육	개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한 지식과 정보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고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들도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이러한 목적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으로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장 제4조의 '평생교육의 이념'이란 항목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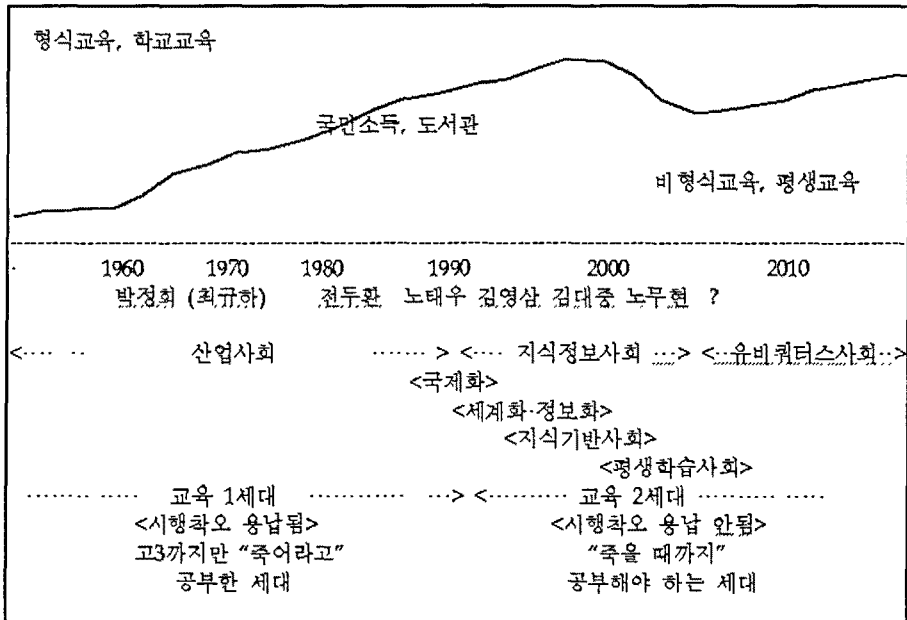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과제나 국가 생존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향후 전개될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평생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생동안 자유롭게 학습기회를 선택하여 배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역할 모형 및 방향성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의 방향성은 주민들의 문화 적응·생활 개선·직업 확장·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실현감·성취감·자아발전·참여의식을 고취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지역연대·지역정체성·공동체의식을 창출하는데 두어야 한다.



<그림 1> 평생교육의 역할 모형 및 방향성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1)지식과 기술의 증가 및 팽창, (2)사회의 급속한 변화, (3)직업사회의 다양화, (4)인간소외 및 비인간화 경향의 가속화, (5)여가시간의 증가, (6)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7)현 학교교육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생교육은, 첫째, 학교교육과 학교 이외의 교육에, 모두 교육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모든 교육활동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셋째, 어떤 형편에 있는 학습자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의 시대별 급변하는 모습은 국민소득 규모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슈 및 특징을 정리하면 개략적으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형식적인 교육인 학교교육에 치중하였으며, 반면에 국민소득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비형식적 교육인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 그림의 중간 부분은 시대별 교육 관련 이슈와 특징을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미래 사회의 변화 및 향후 교육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구호를 제창하면서 국가를 선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시대별 교육 관련 이슈 및 특징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을 건네주는 것이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귀중하게 여겼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 때의 학생이었으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 평생을 그런대로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취업하기조차도 힘든 세상이다. 또한 학교에 다닐 때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졸업할 즈음이면 거의 태반 정도는 쓸모없는 지식과 정보가 되어 소용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흐르고 자고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이며, 그 수명 주기가 점점 단축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성세대를 교육 1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세대를 교육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1세대는 “고3 때까지만 죽어라고 공부한 세대”로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용인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교육 2세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세대”로서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형식적 교육인 학교교육보다는 비형식적 교육, 즉, 평생교육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Ⅲ.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

최근 2-3년 전에 실시한 독서주간에 공공도서관마다 출입구 근처에 게시하였던 “도서관에 가면 길이 있다”라는 짙막한 표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공공도서관이 주민 개개인이거나 사회, 나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도 ‘내가 살던 마을의 공공도서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빌게이츠는 그 때 입시준비나 고시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서가 꽂혀 있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술회하는 인터뷰를 칭찬한 적이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인 주민들의 나이, 성별, 지위 등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로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교육·문화적 기능을 포함하여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의 재생산 기지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실상은 어떠한가.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독서실로 변형되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독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사서직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없이 상급기관이나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왔지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개선, 개혁, 혁신, 혁명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일반열람실을 설치하지 않고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였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이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경영에 있어서 이론과 현실상의 괴리는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이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공감하지 않거나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은 국내·외 문헌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세계 각국 공공도서관의 경영 및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의 공공도서관선언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모든 이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어야 하고, 공공도서관의 봉사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평등하게 이용되는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도서관연맹(IFLA)과 유네스코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임무들을 (1)어린시절부터 아동의 독서습관 육성 및 강화, (2)모든 수준별 공식교육과 독자적 학습 지원, (3)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4)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력 자극, (5)문화유산, 미술 감상, 학문적 업적과 혁신에 대한 인지 증진, (6)모든 공연예술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제공, (7)문화간 교류 조장 및 문화적 다양성 수락, (8)구술전승 지원, (9)모든 종류의 지역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 보장, (10)지역의 기업, 단체, 이익집단에 적절한 정보서비스 제공, (11)정보 및 컴퓨터 사용능력 개발 촉진, (12)모든 연령층을 위한 문맹퇴치 활동과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그리고 필요시 이러한 활동 착수라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임무들은 다음의 <표 2>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이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으면서까지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大澤正雄은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1)자료의 보존과 미래에의 계승, (2)지역문화의 육성 및 발전, (3)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 (4)출판문화에의 공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大串夏身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1)지역 정보 거점, (2)지역의 독서 시설, (3)지역의 지적 유산의 보존·활용·조직, (4)평생교육 학습시설, (5)지역주민의 합의에 공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학자들도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임형연은 공공도서관의

〈표 2〉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현황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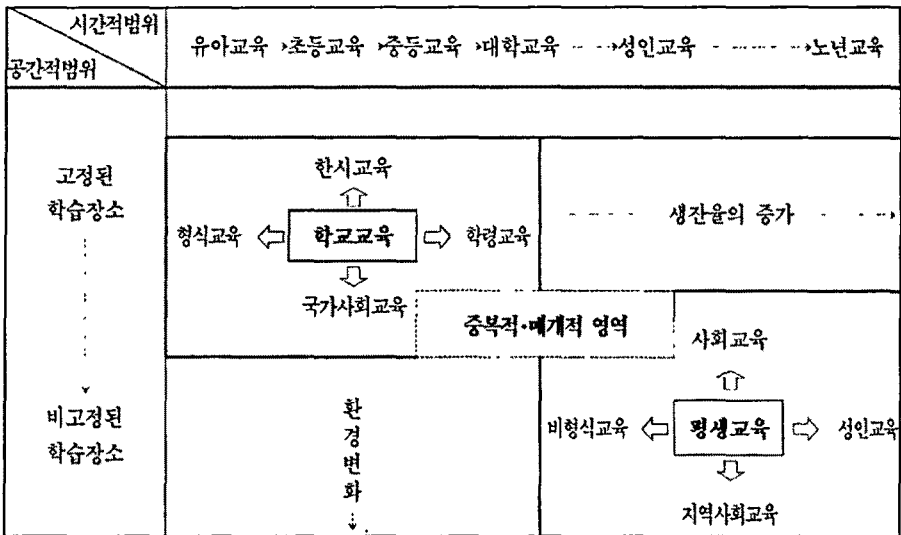
주 제	강 좌 명	강좌수	참여 인원	1회당 참가인원
강좌	강연회/교양강좌/논술지도강의/동화구연세미나/삼락회강좌/어머니도서 세미나/효율적부모역할지도/IMF시대의생활	40	2,676	67
건강	건강지압/단전호흡/발건강강연/생활건강강좌/생활요가/수지침/헬스	863	56,374	65
노인 및 장애인	노인교실/텃밭농예/시각장애인자원봉사자교육(점자도서, 녹음도서)	106	3,562	34
논술	글쓰기심화/글짓기/글짓기교실	562	23,447	42
도예	도예/생활도예/종이공예/한지공예	302	6,283	21
독서	독서지도 관련/독서지도자과정/독서토론·글쓰기/독서회/어린이독서운동교실/어머니독서대학	367	9,170	25
동화구연이야기	구연동화 등/구연동화지도자/어린이동화구연대회/엄마와 함께하는 이야기교실/이야기교실/이야기회	527	16,000	30
레포츠·무용	댄스스포츠/볼링교실/에어로빅/재즈댄스/탁구/고전무용/어린이발레/포크댄스	642	18,461	29
문학	글월의 골짜기/금주의 시/문예창작/수필문학/시조창작법	132	15,579	118
미술	그림그리기/대생/목화/민화/사군자/산수화/서양화/수채화/유화/한국화	1,545	35,992	23
미용관련	메이크업/피부 관리/헤어컷	391	7,598	19
사진	비디오카메라/사진촬영	132	2,271	17
서예	서예/한글서예/한문서예	2,066	61,683	30
외국어	영어/영어회화/일어/일어회화/중국어/중국어회화/인터넷시사독일어/중급독일어회화/토익	3,224	96,883	30
음악	가곡 부르기/가요교실/단소/대금/민요판소리/바이올린/어린이단소/장고/클래식기타/통기타/포크기타/플루트	708	22,832	32
전시	사진전시회/가훈전시회/꽃꽂이전시회/독후감상문전시회/문화교실회원작품전/손인형극/알공예전시회/영화감상/시낭송회 등	778	94,535	122
전통문화	지역별 문화원기/예절과 다도/전통문화놀이반/전통예절과 예절상식	114	2,823	25
취미	꽃꽂이/다종이접기/색종이접기/선문포장/스텐실/종이감기/종이접기/퀵트/탭스/홈페션 등	2,032	52,946	26
컴퓨터	기초컴퓨터/어머니컴퓨터/워드자격/컴퓨터교실/컴퓨터방학특강/컴퓨터통신입문	858	17,091	20
한문	교양한문/맹자/명심보감/생활한문/어린이한문/어린이한자교실/전통천자문교실/중학생한문/한문교실 등	721	24,614	34
기타	꽃집경영/스토리텔링/도서관나들이/웅변교실/자동차정비/부모역할 체험/신문활용교육 등	301	8,103	27
총 계			578,925	35

주요 기능들로서 (1)자료보존 기능, (2)자료제공 및 정보지원 기능, (3)교육적 기능, (4)주민협의 형성 기능을 들고 있다.

필자 역시 청주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서관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정의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당시에 필자에게 다시 되돌아온 대답은 ‘왜 그러한 일을 반드시 공공도서관이 담당해야만 되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 필자는 도서관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을 설득하고자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및 역할들로,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으로 기록문화 유산의 보전, (2)역사의 왜곡화 방지로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 (3)지식정보의 격차 해소로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보장, (4)지식정보의 재생산 기지 활성화로 지식경쟁력 확보, (5)평생교육의 선도와 지역 문화발전에 직·간접적인 기여 등을 제시해오고 있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 그 위상이 크다면 공공도서관은 상급 기관이나 소관 행정부처로부터 이에 걸 맞는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은 폭넓게 해석하면 학교교육 및 학교외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협의로 해석하면 평생교육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의미상 어느 정도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경계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사이에 중복적·매개적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의 하류 지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곳에는 민물고기도 살고 있고, 바다물고기도 함께 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은 민물고기가 강에서, 바다물고기가 바닷물에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존재인 것이다. 만약 강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이러한 지역이 없다면, 강물이 끝나자마자 바닷물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분의 차이에 적응하지 못한 죽은 물고기들로 항상 가득할 것이다.



<그림 3> 평생교육의 정의와 범위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같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해 불가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중복적·매개적 영역에 속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학교 교육적 역할과 평생 교육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함께 수행하여 학교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평생교육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이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자치단체 소속 보다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사회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추가하여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평생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멀쩡한 공공도서관이란 간판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평생학습관이란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한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희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의 일부 수장이나 평생교육 관계자가 평생 동안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활용한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상급 부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당시 이러한 인사들은 이 시기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피해 승진 예정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급 부처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부응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사고과를 잘 받고자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청과 변화 및 이해관계 속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마주치는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인력의 문제로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전문인력 충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둘째, 예산의 문제로서, 기존의 예산을 보장하면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한가. 그 예산은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증원 등에 활용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것들이지, 각각의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 문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동법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 등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문직 사서직원 정원의 거의 1/2에도 미치지 않는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전문인력의 충원이나 예산의 확보와 같은 근원적인 경영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도서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지난 5년간의 도서관통계를 분석해보면, 이미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도서관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는 1998년 공무원총정원령이 발효된 이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1998년 330관에서 2002년 437관으로

〈표 3〉 공공도서관의 성장 및 전문 인력 부족 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년 성장률
도서관수 (단위: 관)	330	370	400	420	437	32.4%
평균 직원수 (단위: 명)	15.5	13.5	12.3	11.4	11.4	-26.5%
평균 장서수 (단위: 권)	50,893	50,074	54,830	59,912	61,719	21.3%
평균 이용자수 (단위: 명)	161,519	181,993	202,284	201,762	201,090	24.5%
평균 대출수 (단위: 권)	165,950	222,283	246,655	241,924	248,803	49.9%

32.4%가 증가하였으나, 도서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5.5명에서 11.4명으로 26.5%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국 공공도서관은 5년 동안에 1관당 장서수와 이용자수 및 대출책수가 각각 21.3%, 24.5%, 49.9% 성장하였다. 이처럼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직원 수의 절대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현장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높은 열정과 함께 담당 업무 부담의 가중을 추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 가운데 인력의 충원이 가장 큰 당면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력부족은 단지 전문사서의 부족만이 아니고, 디지털자료실의 보급과 함께 전산직의 부족과, 학교도서관의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독서지도 및 행사전담인력의 부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자 이상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은 전술한 공공도서관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주춧돌이 되면서 평생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법규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IV.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전 세계적으로 지식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나라마다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열린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라는 당근을 기대하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의 이념적 바탕은 학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지역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얻고 정보를 취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여 모양새를 갖추는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조차도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적용상의 논란 및 부분적인 지원만 있을 뿐이지, 전국적인 평생교육 체제의 실상 파악이나 중앙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 및 국민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몇 차례 주도한 평생학습 축제는 이벤트성, 예산낭비성 행사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평생교육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평생교육기관들을 의도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들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 및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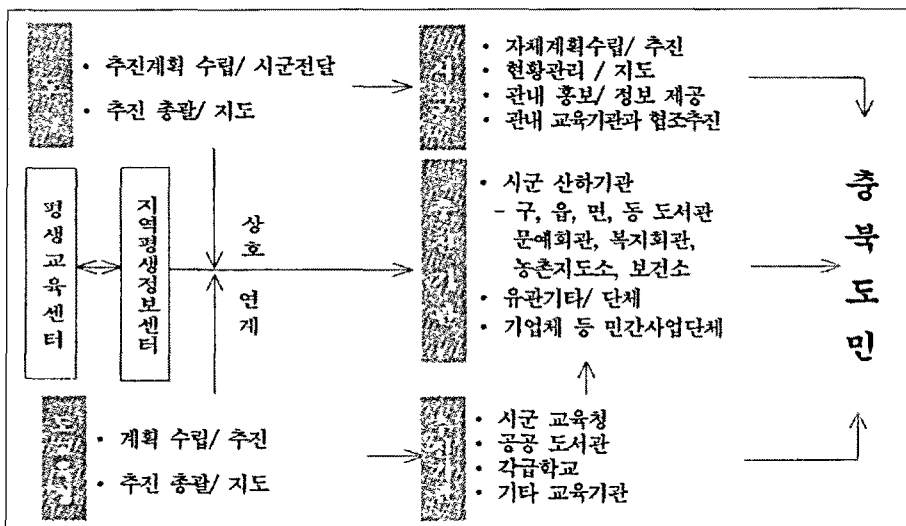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공도서관들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욱이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모색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각 도나 광역시가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상호 참조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각 도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 평생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충북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는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전초기지나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충북지역의 바람직한 평생교육 활성화 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받고, 시·군단위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아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에 청주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경쟁 속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현재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충북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립된 충북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체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상향식 보다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뚜렷한 추진 방안의 부재,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충북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북지역 차원의 자체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확립하고, 이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범 도민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북 전체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지 제도적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의 모든 기관, 단체, 기업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충북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 이는 어떻게 평생학습의 붐을 조성하고, 언제나 누구든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체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충북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의 평생학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실태의 조사·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인적 분포와 특징, 평생교육의 목적과 요구 사항, 평생교육 참여 동기 요인, 평생교육 수강생의 인식, 평생교육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림 4>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 체계

둘째, 충북지역의 평생학습 특성화 및 정책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충북지역은 예로부터 교육·문화를 키워드로 삼아 성장·발전한 지방이므로, 이러한 키워드를 살려 지역을 특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지역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이 국내·외 유사한 환경을 지닌 도시들을 방문하여 학습하고, 벤치마킹하여 나름대로의 특성화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나가야 한다.

셋째, 충북지역 평생교육 업무 및 관련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충북지역의 평생교육 정책부서는 실무자들과 정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들은 지역별 학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 교류와 지원 및 강사 지원 등을 논의하여 나가야 한다.

넷째, 충북지역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북지역의 평생교육 정책은 각 기관들이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섯째,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충북지역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 및 유희인력을 발굴하여 각급 평생교육기관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활히 연계하여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은 강사들이 충북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각 전문 분야별 활동할 수 있도록 강좌의 구성, 강사 추천, 그리고 강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충북지역의 도, 시, 군별 평생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사서 및 평생교육사 등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각 급별 평생교육추진협의회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관들이 함께 구성되어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차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들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사업이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의 중추적인 기구는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각 관종별 도서관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향후 주민들의 평생학습 능력 제고는 거의 말 뿐인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활

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공공도서관과 다양한 평생학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과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면서 충북지역 평생학습의 진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교육행정기관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사서직을 배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기존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업만 보더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거의 대부분 무늬만 평생교육이지 속까지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마치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그 실상이라고 하겠다. 각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지역은 예로부터 양반의 고장이고, 교육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충북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체계의 확립과 평생학습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더 없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평생교육은 우리에게도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교육개혁과 맞물리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각 도 및 광역시의 대표도서관들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별 평생교육체제는 그 사업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해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각 도나 광역시의 평생교육체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교육청과 지역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타개하고 평생교육 사업이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인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차치단체의 전폭적인 협력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전제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외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도 및 광역시, 그리고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과거 10년 전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면 분명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긍정적이라면 그동안의 과정을 '발전'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나 사서직원 및 전체 직원의 수가 그리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추진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주무관청이나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 더 많은 사업 추진실적을 올리는 것이 되겠지만, 사서직원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은 사서직원의 근무의욕과 관련하여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의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적정 사서직원 수의 거의 1/2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도 및 광역시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대표도서관들은 그 지역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각급 공공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도 및 광역시의 대표도서관들은 지역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습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민물고기가 강에서, 바닷물고기가 바다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하구언지역과 같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중복적·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공공도서관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독서지도, 도서관이용, 정보검색 및 활용 등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학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의 특성화 및 정책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 업무 및 관련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평생교육 실무자들과의 정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별 학교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강좌를 실시해야 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전문가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 및 유희인력을 발굴하여 각급 평생교육기관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여섯째, 도, 시, 군별 평생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사서직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체제 및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박성재·장원섭, 사회학습망 구축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곽동철, 지식정보사회와 정보관리. 서울 : 문음사, 2003.
- 곽동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충북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및 연찬 자료(청주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2004.10.28), pp.3-15.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경기개발연구원,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원 : 동 연구원, 2000.
- 김영식,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
 <http://madang21.or.kr/2002_12/0212/T-01/page48.htm>
- 大串夏身, これからの圖書館. 日本 : 靑弓社, 2002.
- 大澤正雄, 공립도서관의 경영, 류현숙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연구. 서울 : 문화관광부, 2003.
- 이돈희·조화태, 교육철학.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4.
- 이진영,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4.
- 이해주·윤여각·전도근,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지식의 날개, 2004.
- 조 벽, “M”세대 학생을 위한 교수법.” 청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실 개소식 기념 초청강연회 자료집. 청주 : 동 개발실, 2004, pp.3-32.
- 조화태·윤여각·김재웅·강태중, 평생교육개론. 서울 :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최돈민, 한국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과 전망. 제1회 충청북도평생학습축제 충북평생교육기관종사자 및 교육봉사단 연수교재. 청주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2004.11.3.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충청북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충북지역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 : 동 도서관, 2004.
-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 전용공간 시설 설비의 정보화 및 인텔리전트화 모델 개발. 서울 : 동 개발

원, 2002.

한국교육개발원, WTO 교육서비스 시장 협상에 대비한 성인교육 협상 전략과 발전 방안 탐색. 서울 : 동 개발원, 2002.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0, p.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교육훈련(CET)에 관한 국내지표 개발. 서울 : 동 개발원, 2002.

C. K. Knapper & A. J. Cropley.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3th ed. London : Kegan Page, 2000.

K. Oliver & M. J. Hannafin. "Developing and refining mental models in open-ended learning environment: A cas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Vol.49, no.4 (2001), pp.5-32.

OECD. *Lifelong learning for adult : 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 : Pergamon Press, 1996.

Philip Gill,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UNESCO,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Paris : UNESCO, 1997).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gov>>